

독자와 함께

“전통문화는 생부모... 외래문화는 친구”

이현재 원장이 말하는 '전통문화 바로보기'

제각기 조상신 섬기는 것은 존재에 대한 확인 행위
선조들이 물려준 미덕 가꾸고 보존해 후손에 전해야

향토에서 들숨과 날숨 씨줄과 날줄로
생성된 전통문화에서 전승의 갈래
꽃을 피우며 전래되어온 문화를 전통
문화라고 한다.

이 땅의 수직적인 전통문화가 생부모
라고 한다면 수평적인 외래문화는
친구이다.

격변의 사회 1894년 서양역법 적용으로
이중적 혼란과 일제강점기 술한
문화말살·수탈정책, 동족상잔의 6·25전쟁,
그나마 새마을 운동으로 동네(지역)문화가
멸실되는 경제부흥의 개화기에 전통문화와
다양한 외래문화가 서로 복합·절충·융합되는데,
생부모문화 선조들이 물려준 민속·토속신앙·무속
등 우리 것을 미신이라고 하대하고 멸시의 눈으로
보며 심한 고통과 편견을 겪어온 스스로
정통성을 잃고 퇴색되고 회의적인 과도를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지만

동일성문화단체인 공존의 가치를 추구하는
전환기에서, 동방문명의 원형이 동이의
홍산문화 슬기로운 요하문명(遼河文明)이
천손족(天孫族) 삼신상(정반(靑斑)문화)을
정신적 모태로 한 한문화(韓文化-朝鮮)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우수하고 소중하고 세계적인 가치를
인식하는 전통문화의식 바탕에
문화를 향유하는 문화중흥기에
진입하고 있다.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곳(축제)과
신바람으로 받고향신, 문화재창출로
부활하고 있다. 이 땅의 전통문화는
자랑스러운 문화문명국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다.

광주에서 제일 높은 곳 최고수령(약 600년)의
생물나무는 중심사 위 중봉 가는 길
느티나무이다. 매년 음력 열 나흘날(2월27일) 오



무등산 중봉 가는길에 위치한 최고수령(약 600년)의 느티나무

후 3시 이곳에서는 무등산 상당산재가
열린다. 우리는 차를 올리는 명절과
고인의 영전에 읊을 하고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하는 기일과 절기에
따라 자연에 순응하고 감사하고
배려하는 남다른 특별한 미풍양속을
가지고 있다. 이는 각자의 생명을
이어가는 혈연과 자연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다. 이를 거부한다면 인간으로서
배운망덕일 뿐 아니라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이 아닐까?

세계 각 지역 인종마다 제각기 조상신(新子信仰)을
섬기는 까닭은 자기 존재에 대한 확인행위이다.
이것이 사람답게 사는 인간의 도리이다.
생부모를 모실 것인가? 양부모를 모실
것인가? 나(저)의 참 존재를 의식해야
남(상대방)을 사랑할 줄 안다.

주체성문화 명절은 보름에 한 번씩
있는 절기와는 구분된다. 한국의 명절은
농경생활의 순환 속에서 발전해왔다.
크게 보름 설·대보름·한식·단오·백중(百中)·추석·동지가
있다. 정월에 가장 큰 명절은 설과
정월 대보름이 있다. 설은 공경의 생부모문화
이며, 정월 대보름(上元-烏忌日)문화는
경외하는 자연에 건강과 풍요기원을
천신(薦新)하는 자연친화적 배려의
명절이다. 우리 선조들은 신·관혼상제때에
상부상조하는 예상거래(禮尙去來)를
잘한 지구촌에서 드문 으뜸가는
훌륭한 전통문화를 가진 민족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전통문화를
알고·찾고·가꾸어 보존하고 계승하여
후손에게 값지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과거를 통해 밝은
미래를 여는, 이것이 이 땅에 태어난
생명을 이어주는 생부모 전통문화
이다. <호남문화원 원장>

■작지만 소중한 이야기

좁도리 쌀은 지역을 따뜻하게 덥히는 '인심의 상징'

북구 중흥동 새마을금고, 올해도 107포대 모금 훈훈

좁도리는 절미의 전라도 방언이다. 쌀
향아리에 쌀을 퍼낼 때 한 움큼씩
떨어서 다른 곳에 모아두는 쌀이
좁도리 쌀이다.

쌀이 화폐나 다름없던 옛날에는
이렇게 모은 쌀은 긴한 일이 생겼을
때 팔아서 해결하거나 남을 돕는데
사용했다. 덜 먹고 아껴서 좋은 일에
쓰려고 모은 쌀, 좁도리 쌀은 세태가
변한 오늘에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정을 전달해 주는
훈훈한 인심의 상징이다.

정남총(67) 광주시 북구 중흥동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지난 2월3일
좁도리쌀로 모은 20kg 15포대를
(재)한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북구 생용동 패밀리요양원에
전달했다. 기탁자를 대신한
행사지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어서 보람이 더욱 크게
느껴지는 것이다. 중흥동
새마을금고는 올해도 좁도리
쌀 107포대를 모금했다. 10년 전
이사장이

로 취임한 정 이사장이 올해까지
모금한 좁도리쌀만 800여포대나
된다. 취임 초반 해도 40~50포대
모금에 불과하던 것이 최근 4~5년
사이에는 해마다 100포대 이상이
기탁된다.

좁도리쌀 모금은 새마을금고연합회가
27년 전부터 전국을 돌며
새마을금고를 통해 모금한 뒤
이웃에게 전달해 오고 있는
행사다.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좁도리쌀 모금에서 중흥동
새마을금고는 단연 뛰어난 실적을
올렸다. 이런 배경에는 정 이사장의
이웃에 대한 배려와 남다른
관심이 크게 기여한다. IMF이후
새마을금고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취임한 정 이사장은
원칙과 소신있는 정도 운영을
통해 중흥동 새마을금고의
신용도를 높였다.

덕분에 2000년도 84억원 규모의
자산을 380억원으로
증가시켰다. 새마을금고를
지역주민과 더욱 밀착된
예금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려운 이웃



북구 중흥동 새마을금고(이사장 정남총·오른쪽)에서 두번째는 지난 3일 20kg 쌀 15포대를 북구 생용동 패밀리 요양원에 전달했다.

을 돕는 일에 앞장서 나섰다.
그러자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금고의 운영도
활발해 지는 시너지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모금된 쌀은 기탁한
분들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결정해서
배정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도움을
줄 곳이 많아져
되도록 많은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000명의 회원과 함께
서민형 금고로
지역밀착형
운영을 하고 있는
중흥동 새마을금고
가 실시된
반오진 좁도리쌀로
지역을 따뜻하게
덥히고 있다. ▲박승희·광주시 북구
문홍동

클릭! 맛집



적절한 온도에서 삶다가 '절묘한 타이밍'에 꺼내

쫄깃한 그 맛 "워매 군침도네!"

■광주시 용산동 '푸른바다' 꼬막정식

겨울이면 다른 음식 없다. 꼬막이다.
물기가 반드르 도는 갓 삶은
꼬막을 한 입 들면,
짭조름한 바다
내음에 입이
즐겁다. 찬바람
부는 벌갓갯가에
서서 애잔한
향수에 젖는
기분이 든다.

광주시 동구 용산동 283번지
지하철 소태역 2번
출구 인근의
푸른바다(입주
고제철)는
간간하고,
쫄깃쫄깃
하고,
알큰하기도
하고,
배릿하기도
한 꼬막의
모든
맛을
보여준다.
벌갓 꼬막
정식을
제대로
하는
집이다.

가장 큰
특징은
매장
입구의
수족관에
담긴
살아
있는
꼬막이다.
대개
꼬막은
물
온도를
맞추기가
힘들어
수족관에
담지
않는데,
이
집은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수족관을
고집한다.
수족관에
꼬막을
넣으면
시간
이
지나
입을
벌이는
죽은
꼬막을
골라내기도
쉽다.

손님
상해가며
겉질을
깎는데
필
만
나오거나,
죽은
지
오래돼
썩은
맛이
날
때는
꼬막
먹기
참
서운해
진다.

이
집은
수족관에서
죽은
꼬막을
걸러
내기에
마음
놓고
먹어도
된다.

꼬막정식은
꼬막데침과
양념장을
얹은
양념꼬막,
삶은
꼬막살을
넣고
부친
꼬막전,
각종
채소와
삶은
꼬막살을
매콤새콤하게
버무린
꼬막회무침,
꼬막살을
넣고
끓인
꼬막된장국이
함께
나온다.

꼬막데침은
적절한
온도에서
삶다가
'절묘한
타이밍'을
맞춰
꺼내는
게
맛의
비결.
이
집
꼬막데침은
적당히
익혀
불그스름하고,
짭조름하면서
아들아들한
꼬막
육질이
고스란히
살아있다.

꼬막회무침은
식초를
많이
쓰지
않고,
매실액으로
신맛을
냈다.
특,
쏘지는
얹지만
입안에
특유의
시큼한
맛이
남아
고명으로
넣는
야채도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여수에서
공수한
제철을
맞은
새조개를
무,
양파,
다시마,
대파
등
20여
가지
재료를
넣고
우리
육수에
살
짝
담가
먹는
새조개사브사브도
별미다.
꼬막정식
1만
원,
새조개사브사브
1만5천원.
062-234-8898.
/글·사진=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찾아가는 길



<새조개>

영 / 학 / 안 / 내

영화에 빠지다

메가박스

Table listing movie titles and showtimes for Megabox, including '퍼시 잭슨과 번개 도둑' and '의형제'.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구 연변역사거리 ☎1544-0600

콜롬버스시네마

Table listing movie titles and showtimes for Columbus Cinema, including '발렌타인데이' and '하치이야기'.



1588-7941 상암형원점 행복-(1번 or 2번)→0번

하미시네마

Table listing movie titles and showtimes for Hamichema, including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and '하치이야기'.



고객사랑 고객감동 www.hamichema.co.kr / 1588-9120
전대무던 하미스포박스 ☎267-7777

씨너스전대

Table listing movie titles and showtimes for Cinears, including '전우치' and '의형제'.



씨알있는 영화상영 www.cinrus.co.kr / 1544-0070
북구문헌소 건너편 ☎511-1000

제일시네마

Table listing movie titles and showtimes for Jeil Cinema, including '의형제' and '아바타'.



새로운 기쁨 www.primuschema.com/www.jelcinema.co.kr
홍창로 3기 ARS 전화예매 ☎227-1960